

사는 오전에 감사를 시작할 때에 현화보고를 받으면서도 자료가 불성실한점들을 매섭게 지적, 서술이 시퍼랬으나 3시부터 오후감사가 시작된지 45분만에 朴成達(박성달)의 金漢奎(김한규)의(民主) 정당을 면을 마치자 辛相佑(신상우)의(民主) (이 城西(성서)의 慶北(경북)을 주문제만 따지고 의원들에게서면담을 제의, 합의를 바예상과도달리 신중계 마감.

辛(신)의원이 서면담자료가 불성실할때는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중의간사 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일포를 놓았지만 서면담면으로 대신할정우 감사대상이 관공로서는 누워서 떠먹기인 셈.

○辛相佑(신상우)의원이 慶北(경북)의 城西(성서)에 임주하게된 경의와 大邱(대구)시의 대채를 묻자 차시장은 『84년도 시 경기 불황으로 城西(성서)의 임주업체가 미달돼 대상업체에대한



유치할것들과 慶北(경북)의 이를 어리게 됐다』고 밝혔다.

차시장은 주면담제의 일부 반대로 현재 공청정부를 유보해놓고 있으며 大邱(대구)에서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유사시설과 日本(일본)시조카 등당장간고 전할 政院(정원)발생문제들을 분장하고있고 박하고 합계의전이다 민청정부를 일일 정부를 신중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현 安養(안양)의원(民主)은 城西(성서)의 慶北(경북)이 임주한반드시 민청의가 보인질수밖이었으니 신중히 검토된다 가등한한 공해업체를 일일시키지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제시.

○保社(보사)의원 감사의면의 서면으로 대신하게되자 판권을보았던 李赫(이혁)의원(民主)이 추궁했던 大邱(대구)시 위생처민청의 본보처리양제 구인의를 朴英淑(박영숙)의원(民主)

이 사망하고 52명이 도망친 경우」등에대한 大邱(대구)시장의 담변을 들지못해 취재진이나 정관계자들이 아쉬움을 표시.

야당의 한관계자는 『竹田

證人채택순간 停會...어물쩍 넘겨

자들을 질타하거나 당황하게 만들며 남성의원들의 귀감(?)이 됐다는 중론.

이날 朴英淑(박영숙)의원(民主)은 사전에 大邱(대구)시에 요구한 국감자료를 받듯게까지 세밀히 검토한뒤 시립하아송정문제를 가폐이지마다 일일이 구체적부문을 지적하면서 대책과 문제점을 밝히라고 요구 여성들의의 심세함과 치밀성을 엿보게했다는 것.

또 申英順(신영순)의원(民主)도 미리 大邱(대구)시의 의료보험조합 보험료를 조합별로 조사한뒤 이날 질의에서 『시가지역의 평균 보험료가 9천6백4원임에 비해 渠(渠)가 7천5백37원으로써 양지역이 평균 2천2백90원이나 차이나는 이유를 밝히라』는등 보사행정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동시유지를 해가및 공문서 번조사전에 바글바글 분포 처리양제구입부장이 품문될 수 있었을것인데 잘못하면분 허버릴지 모를것다』며 흥분.

○22일 保社(보사)의 大邱(대구)시감사에서는 두 여선의원이